

# 이스타, 회생계획 제출까지 2주... 인수자 없을시 파산 위기

우선 매수권자 없어 공고일정 연기  
창업주 리스크 등 매각 가시받길  
최근 2~3곳서 인수되지 적극 표명

이스타항공이 새 인수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단 2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재판이 이어지며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20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인수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약 2주의 기간 동안 이스타항공은 당사를 인수할 새 주인을 찾아야 한다. 이스타항공이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업계에서는 당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법원도 이스타항공의 청산가치(24억9000만원)를 존속 가치(5억6000만원)보다 약 5배가량 높다고 판단했



지난달 27일 이상직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시스

다. 그만큼 회사의 지속 운영에 따른 가치보다 영업 중단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많다고 본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우선 매수권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공개 매각 공고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중순경 이스타항공의 공개 매각

을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같은 달 30일로 일정을 한번 연기했고, 이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시 해당 공고 일정을 미룬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 중이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 매수권자(예비 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데, 다른 예비 인수자가 우선 매수권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2~3곳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선 매수권자로 나서지는 않고 있어 공개 매각 공고 일정을 미루고, 스토킹 호스 방식의 매각 기간을 연장해 2~3곳과 협상 시간을 벌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으로 인한 '창업주 리스크'가 현존하는 만큼 최종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의원의 재판 결과 등이 이스타항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향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 등으로 새 인수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로 재판이 예정되었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또,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삼성전자, 2.5D 패키지 기술 'I-Cube4'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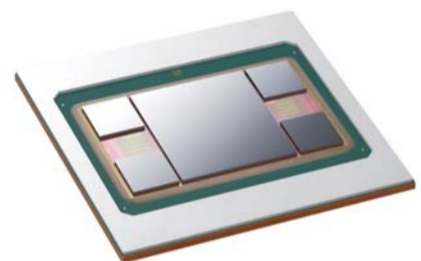
첨단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기술 결합  
여러칩 1개 패키지에 배치... 전송속도 ↑

삼성전자가 첨단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패키지 하나에 담는다.

삼성전자는 독자 구조의 2.5D 패키지 기술 'I-Cube4'를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술은 로직 칩과 4개의 HBM 칩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한 것이다. 고대역폭 데이터 전송과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를 요구하는 HPC, AI/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적용해 초미세 배선을 구현하고, 위에 CPU와 GPU 등 로직 반도체와 HBM을 쌓아서 하나의 반도체처럼 동작하게 하는 이중 집적화 기술로 I-Cube4를 구현했



2.5D 패키지 기술 'I-Cube4' /삼성전자

다. 여러 칩을 1개의 패키지 안에 배치해 전송 속도는 높이고, 패키지 면적은 줄일 수 있다.

패키지에 실장하는 반도체 칩이 많아질수록 인터포저 면적도 함께 증가하면서 공정상 어려움이 생기는데, 삼성전자는 100마이크로미터 수준 인터포저를 변형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하우를 적용해 실제 적용하는데 성공했다. 몰드를 사용하지 않는 독자적인 구조는 열 방출을 효율적으로 하게 해준다.

아울러 패키지 중단 단계에서 동작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불량률 미리 걸러내 전체 공정 단계를 줄여 생산 기간을 단축하는데도 성공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마켓전략팀 강문수 전무는 "고성능 컴퓨팅 분야를 중심으로 차세대 패키지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삼성전자는 'I-Cube2' 양산 경험과 차별화된 'I-Cube4' 상용화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HBM을 6개, 8개 탑재하는 신기술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8년 로직과 2개의 HBM을 집적한 'I-Cube2' 솔루션을 선보인 바 있다. 2020년에는 로직과 SRAM을 수직 적층한 'X-Cube' 기술을 공개하며 차세대 패키지 기술도 차별화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SK매직-삼성전자, 가전렌탈 사업 맞손

SK매직 플랫폼 통해 삼성가전 렌탈

SK매직이 삼성전자와 함께 결합 상품을 출시한다.

삼성전자의 가전 제품을 SK매직 플랫폼을 통해 렌탈로 판매하는 등 시너지 모색에 나섰다.

SK매직은 윤요섭 대표와 삼성전자 강봉구 한국총괄(부사장)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삼성전자의 다양한 가전 제품을 SK매직 플랫폼에서 판매 ▲삼성전자 제품과 SK매직의 차별화된 렌탈서비스를 결합한 상품 출시 ▲SK그룹 관계사 및 다양한 구독 플랫폼으로 판매 채널 확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SK매직은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고객의 요구가 강했던 에어드레서,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등 대형 제품에 대한 라인업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렌탈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SK매직은 제품 무상 A/S, 소모품 교체 등 일반적인 렌탈 관리서비스뿐 아니라 기존 시장에 없던 공간 전체를 관리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신규 결합상품과 공간 관리 서비스를 통해 매출과 렌탈 계정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훈 기자 bada@

## 한화큐셀, 獨 '최고평판 어워드' 2년 연속 1위

최고점 100점 획득

한화큐셀이 독일 '최고 평판 어워드' 전기산업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화큐셀은 6일 해당 어워드가 독일 유력 경제지 '포커스 머니'에서 주관하는 독일에서 가장 신뢰 받는 브랜드 어워드 중 하나로, 70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어워드는 독일 경영경제연구소(IMWF)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온라인 반응 약 970만 건을 분석해 평판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했다. 한화큐셀은 전기산업 분야에서 최고점인 100점을 획득하며 2년 연속으로 1위 자리에 올랐다.

한화큐셀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며 현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제품으로는 태양광 모듈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공급하며 토털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지붕 공간을 빌려주면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태양광 전력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거래 사업과 태양광 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화큐셀 김희철 사장은 "한화큐셀은 고객의 에너지 사용 효율과 편리성을 높이는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독일 에너지 시장에서 명품 브랜드로 평가 받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 솔루션 판매를 확대해 주요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 에어부산 무착륙 학습비행 실시

에어부산이 코로나시대 새로운 비행 체험 프로그램인 '무착륙 학습비행'을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실시한다.

에어부산은 6일 부산 남성초등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에어부산 사옥과 항공기 기내에서 무착륙 학습비행 프로그램을 6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어부산 사옥 내 A321-200 항공기 기내를 똑같이 재현한 목업(MOCK UP) 시설에서 ▲체험학습 ▲운항·캐빈 승무원, 정비사 등 항공 종사자 직무소개 ▲유니폼 시작 및 기내 서비스 체험 ▲무착륙 비행체험 등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무착륙 비행체험은 김해국제공항에서 포항, 강릉, 서울을 거쳐 다시 김해공항으로 되돌아오는 2시간 비행으로 이뤄진다.

/김수지 기자

## 삼성 OLED 노트북, 다크모드시 전력 25% ↓

픽셀 끄는 방식으로 소비전력 감소

삼성 OLED 노트북이 다크 모드를 이용하면 소비 전력을 25%까지 아낄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모바일 마크 2018' 시나리오를 통해 OLED 노트북 배터리 사용 시간을 측정했다.

그 결과 화이트모드에서는 9.9시간이었지만, 다크모드에서는 11시간을 구동할 수 있었다.

자발광 소자를 사용하는 OLED 디스플레이 특징 때문이다. 다크모드를 사용하면 작동하는 픽셀 비율인 'OPR'이 감소한다.

다크모드는 정보를 담지 않은 바탕을 어둡게 바꾸는 UI 디자인이다. 밝은 화면에 검은 글자가 아닌 어두운 화면에 흰 글자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



삼성 갤럭시 북 시리즈. /삼성디스플레이

자가 새로 내놓은 갤럭시 북 프로 시리즈는 다크모드를 기본 적용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OLED는 픽셀을 끄는 방식으로 검은 색을 표현한다. 이때는 일종의 암전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반면에 LCD는 검은색을 표현할 때도 백라이트는 항상 켜져 있다. 이로 인해 '트루 블랙'을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크 모드를 적용해도 소비전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